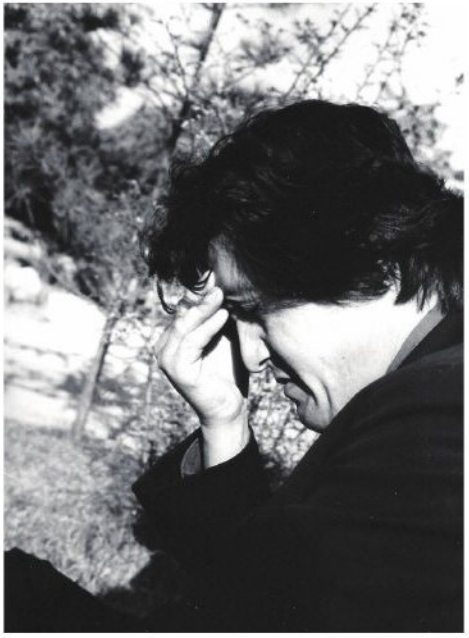


김광우: 1974~2021 자연+인간





자연+인간 36
180 × 250 × 500(cm), 1997, 브론즈 + 오브제







자연+인간 35
280 × 180 × 160(cm), 1991, 브론즈

작가는 기존의식에서 해방될 줄 알아야 하고
인간은 변화하는 생명을 가진 동물로써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근대는 자연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였으나 인간은 다만 자연에 참여할 뿐이다.
해결은 자연에 참여하는데서만 풀려질 뿐이다.”



자연+인간 38
200 × 180 × 220(cm), 1997, 양은냄비 + 오브제



자연+인간 37
250 × 250 × 340(cm), 2000, 혼합재료





자연+인간 31
60 × 40 × 30(cm), 1975, 브론즈



자연+인간 1
40 × 100 × 27(cm), 1981, 나무



자연+인간 16
105 × 82 × 26(cm), 1989, 스테인레스 + 혼합재료



자연+인간 24
160 × 100 × 70(cm), 1997, 금속 + 오브제



자연+인간 2
70 × 30 × 5(cm), 1998,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3
21 × 64 × 74(cm), 1998,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5
192 × 94 × 10(cm), 1998,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6
128 × 27 × 8(cm), 1998,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7
20 × 117 × 18(cm), 1998,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4
80 × 194 × 22(cm), 2001,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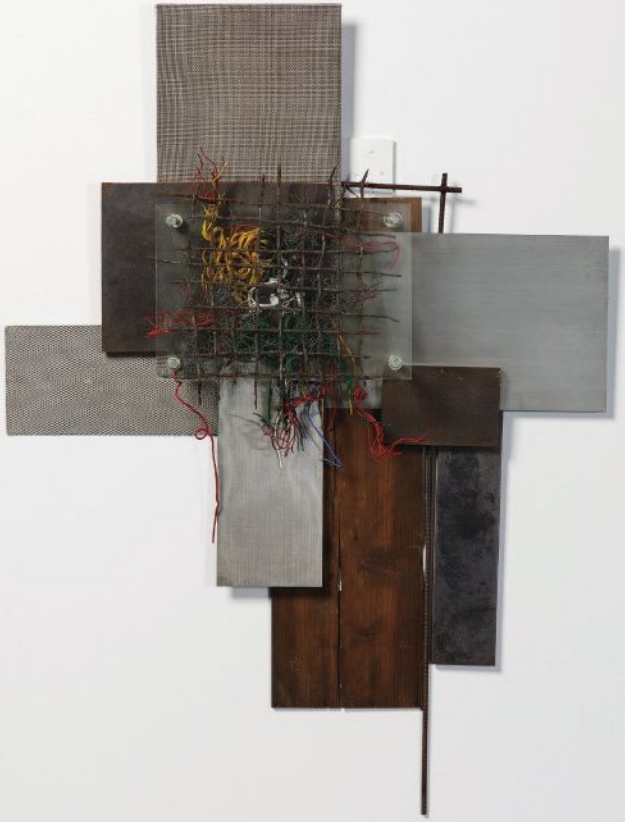
자연+인간 27
75 × 130 × 23(cm), 2001, 스테인레스 + 혼합재료



자연+인간 29
120 × 162 × 40(cm), 2001,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25
176 × 127 × 20(cm), 2003,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26
96 × 129 × 13(cm), 2003,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28
86 × 143 × 20(cm), 2003, 스테인레스 + 혼합재료



자연+인간 30
200 × 68 × 27(cm), 2003,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32
90 × 130 × 22(cm), 2003, 스테인레스 + 혼합재료



자연+인간 33
87 × 126 × 18(cm), 2003,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34
120 × 140 × 35(cm), 2003,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23
250 × 150 × 175(cm), 2005,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20
220 × 70 × 155(cm), 2006,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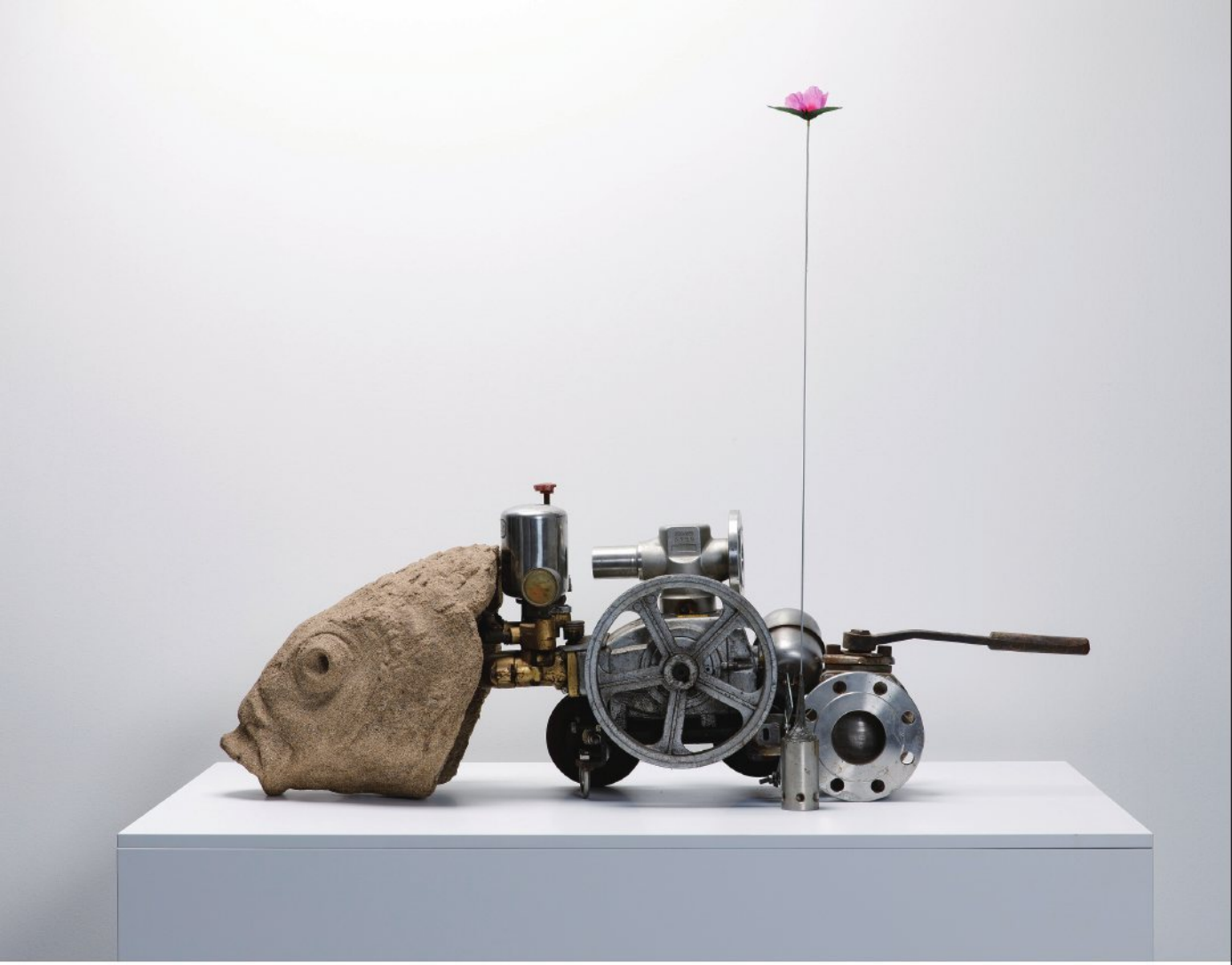
자연+인간 19
180 × 75 × 120(cm), 2006, 나무 + 스테인레스 + 오브제



자연+인간 8
50 × 95 × 27(cm), 2006, 흙 + 오브제



자연+인간 11
124 × 83 × 32(cm), 2006, 합판 위에 모래 + 오브제



자연+인간 15
46 × 130 × 32(cm), 2012, 모래 + 오브제



자연+인간 14
80 × 45 × 60(cm), 2013, 모래 + 오브제



자연+인간 21
52 × 42 × 106(cm), 2014, 모래 + 오브제



자연+인간 22
310 × 160 × 220(cm), 2018, 레디메이드 오브제



자연+인간 9
82 × 123(cm), 2020, 모래 + 흙



자연+인간 10
62 × 123(cm), 2020, 합판 위에 모래



자연+인간 12
82 × 123(cm), 2020, 합판 위에 모래



자연+인간 13
62 × 123(cm), 2020, 합판 위에 모래



자연+인간 17
110 × 70 × 40(cm), 2000, 스테인레스 + 혼합재료



자연+인간 18
94 × 52 × 47(cm), 2020, 레디메이드 오브제 + 모래

우주적 지평에 이르는 길



윤진섭(미술평론가)

I.

김광우(1941-2021)는 포천 출신의 조각가다. 거구에 작품에 대한 열정이 깊어 늘 포효하듯 우렁차 보였는데, 아쉽게도 여든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자연+인간>은 김광우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명제다. 1970년대에 그는 이 명제에 '우연'을 덧붙이기도 했지만, 80년대 중반에 다시 빼, 이후 <자연+인간>은 평생에 걸친 화두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나는 김광우 선생[1] 을 1974년에 처음 만났다. 당시 광화문 대성학원 앞에 있는 서울미술학원에 조소 강사로 근무하던 고(故) 백철수의 선배로서 작품에 대한 조언을 위해 잠시 들렀던 것. 때마침 늦가을이라 장발에 바바리 코트를 걸친 그는 거구에 풍채가 좋고 목소리 또한 커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당시 미대 입시생 신분으로 거기서 데생을 배우던 나는 우연히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덩달아 따라간 곳이 다름 아닌 미술회관이었다. 조계사 맞은편에 있던 미술회관은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974년에 개관하여 1979년 동숭동으로 이전, 훗날 지금의 아르코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가 보니 바로 그 미술회관에서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창립전이 열리고 있었고, 아래층 전시장에 김광우의 <자연+인간+우연>이 있었다. 그때 바닥에 수북이 쌓인 낙엽 위에 껍질을 벗긴 거대한 나무둥치들이 놓여있던 광경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그것이 <자연+인간+우연>과의 첫 만남이었다.

II.

왜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가? 몸 전체에서 풍기던 '기(氣)' 때문이다. 이 기가 그가 생래적으로 지닌 예술가적 기질과 천품(天稟), 그리고 예술에의 끊임없는 열정과 만나면서 오늘날의 조각가 '김광우'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60여 년에 이르는, 대하(大河)와도 같은 그의 작품세계를 요해(了解)하기 어렵다.

김광우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포천, 휴전선이 가까운 곳이다. 한 인터뷰[2]에서 그는 열 살 때 6.25 전쟁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1941년생이니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억은 유년기에 겪은 희미한 추억에 지나지 않으나,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기억은 또렷하다. 그때 목격한, 포탄이 작렬하고 기관총 소리가 귀청을 찢는 전장(戰場)의 참혹한 모습은 훗날 그의 작품에 기관총이나 포신, 군화 등등 일종의 상징을 통해 반영되기에 이른다.

김광우가 유년 시절에 품었던 "전쟁은 왜 하는가?"[3] 라는 의문은 훗날 작품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연'이라는 주제가 발아하는 씨앗이 되었다. 전쟁 체험에서 비롯된 이 질문은 '인간과 문명'을 바라보는 한 관점이 되었고, 거기에서 작품의 다양한 변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김광우는 또한 자신이 예술을 하게 된 동기를 가난에서 찾았다. '궁즉통(窮卽通)'[4] 즉,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가난에서 오는 오기가 오히려 예술에 대한 열망을 부추긴 것이다(그는 만약 자신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오기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미술대학에 입학한 1961년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해로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였다. 한 해 전의 '4.19 혁명'이 야

1) 이하 존칭 생략.

2) 2020 경기도 문화의 달 "포천 예술을 잇다", <조각가 김광우를 만나다>, 대담자: 임승오(포천예총 회장, 작고)

3) 이하 자세한 내용은 동 인터뷰를 참조할 것.

4) 주역(周易).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의 줄임말.

기한 사회적 혼란과 '보리고개'로 대변되는 가난도 이 시기를 특징짓는 키워드들이다.
김광우는 보리고개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대학에 진학을 했고, 군용차를 몰래 타고 서울에 가던 쓰라린 추억을 지니고 있다. 그가 훗날 당시 미술인들의 로망인 [국전]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연거푸 수상(1975, 77)한 것은 작가로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Ⅲ.

1970-80년대에 나타난 김광우의 작품 경향을 분석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다소 긴 인용임을 무릅쓰고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자연+인간+우연>의 시기는 사물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라 변형된 사물의 표정을 조각의 형식을 빌려 서술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브론즈, 대리석, 나무, 화강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이 시기의 작품들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표면을 지닌 단순한 추상적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들은 중간 부분이 꺾여 주름이 진 원통형이거나, 넓은 천을 빙빙 돌릴 때 나타나는 부풀린 매듭의 연속,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개의 현무암 덩어리에 방석을 브론즈로 떠서 끼워 놓은 것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우연'은 바로 이처럼 어떤 사물에 힘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표정에 주목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물들, 가령 둥글고 긴 베개를 반으로 꺾었을 때 어떤 주름이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또한 부드러운 풀자루를 주무르다 정지한 상태의 표정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추상조각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작위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인간+우연> 연작에서 문명비판적인 시선의 <자연+인간> 연작으로 선회할 때, 김광우가 소재로 선택한 것은 인간과 기계였다. 특히 여성의 인체에서 장기를 제거하고 그 속을 기계의 부품으로 가득 채운 일련의 작품들은 이 주제에 썩 부합하는 것이다. 그는 '환치(depaysment)' 기법을 사용하여 사물의 초현실적 풍경을 드러내는 작업에 주력했는데, 그것은 가령 오토바이에 커다란 날개를 부착한 것에서 잘 나타나듯이 낯익은 사물들을 서로 다른 맥락에 전치시킴으로써 낯선 광경을 연출하는 기법에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5]

<자연+인간+우연>에서 '우연'의 소거는 김광우의 '모던(modern)'한 언술 행위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즉 현대 추상조각에서 매끈한 덩어리(mass)가 강조되는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생활세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소재 면에서 일대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한 풍경이란 과연 무엇일까?
부목(浮木)의 발견은 그러한 전환의 계기를 이룬다. 1998년, 김광우는 교환교수로 미국에 체류하게 됐는데, 그때 한 친구가 개인전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아니 돈도, 작업실도, 재료와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개인전을 준비하라는 말인가.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일, 고민에 빠진 그는 어느 날 허드슨강(江)에 갔는데, 그때 강둑에 산더미처럼 쌓인 부목을 발견한 것이다. 됐다. 바로 저거다![6]
김광우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외쳤다.
그리하여 무려 40미터 길이에 달하는 부목 설치작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7]
이 점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김광우의 작품 명제가 <자연+인간>으로 전환되면서 그의 시선이 문명비판 쪽으로 돌려지게 된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시각이 대

5) 졸고, <자연의 소리>. 노을조각공원 도록, 2009
6) 앞의 인터뷰 참조.
7) 이 인터뷰에는 이 작품 말고도 일본에서 한 500미터짜리 부목 설치작업에 대한 언급도 있다.

립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친화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자연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연을 들어 설명하기보다는 반대로 기계문명과 인간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거꾸로 자연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소재로 한 <자연+인간> 연작은 이러한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난 매우 뛰어난 작품들이다. 부목(浮木)을 자르고 다듬어 기계부품이나 낡은 생활용품과 결합하여 만든 이 연작은 재기에 넘치는 창의력의 소산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기보다는 미적 대상에 적합한 이 연작에는 '우연'의 의미로서의 자연적 요소가 개입돼 있는데 부목이 바로 그것이다. 파도에 휩쓸려 바닷가에 도달한 부목을 우연히 습득하여 제작에 보탠 그것은 인체와 기계부품과의 결합을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던 시기의 작품들보다 훨씬 더 완곡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악기를 비롯하여 주방용품, 각종 생활용품 등 스텐 제품을 적재적소에 붙이고 이를 잘 다듬은 부목과 결합시킨 이 오토바이 연작은 나무라고 하는 자연의 산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직설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완곡한 우회로를 택한 김광우의 문명관이 잘 드러난 수작(秀作)이다.[8]"

Ⅳ.

김광우는 창원대학교와 부산의 동아대학교 교수로 30여 년의 세월을 봉직했다. 창작 생활을 하는 동시에 후진을 양성하던 뜻깊은 시기였다. 이 시기에 김광우는 동아대학교 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하는 한편, 2004년 부산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와 바다미술제 미술감독을 맡아 미술행정에 이바지하였다. 교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포천으로 돌아온 김광우는 그곳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고할 때까지 근 20여 년 간 작업에 몰두했다. 작업실은 갖가지 공구와 크고 작은 작품들과 다양한 재료들로 가득 찬 창작의 산실이었다. 잔디가 깔린 야외조각장은 대표작들로 꾸몄다.

특기할 것은 이 시기에 커다란 소파 등 일상적 사물에 접착제를 바른 후 그 위에 모래를 뿌려 기존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물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한 점이다. 이러한 류의 작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과연 초현실주의적 환치(데페이즈망)일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사물의 환치를 통해 관객을 낯선 국면으로 유도하자는 의도보다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광우는 자연과 문명의 대결 국면을 극복하고 생애의 말년에 이르러 자연으로의 회귀를 시도한 것이다. 사물에 모래를 덧씌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캔버스에 흙을 바른 뒤 거칠고 대담하게 획을 긋는 행위성이 강조된 작업을 통해 자연의 원초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연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 인간 위주의 역사보다 자연 순리의 역사가 더욱 소중하고 귀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김광우가 스무 살 무렵에 던진 하나의 질문, 곧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우연의 세계[9]"에 몰입, 우주적 지평에 이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8) 졸고, <자연의 소리>에서 인용. 1998년 허드슨 리버 갤러리에서 열린 "뉴욕 첫 개인전에 대한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평론가 비비안 레이너(Vivian Lainer)는 "살바도르 달리가 살아있었다면 오브제에 대한 그의 놀라운 병치를 보고 부러워 했을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오브제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결합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위키백과 '김광우' 항목 참조)

9) 칼 세이건에 의하면, 우리가 우주 속에 내팽개쳐졌을 때 행성이나 그 근처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은 1조를 1조배하고 거기다 10억을 곱한 것 중의 하나보다도 작다고 한다. 1에다 동그라미 서른 세개를 붙인 수를 분모로 하고 분자를 1로 삼은 수보다 더 작은 확률이 되는 셈이다.



자연+인간 숨쉬는 땅
1400 × 600 × 300, 2009, 코르텐스틸



포천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김광우 (1941 ~ 2021)

그를 기억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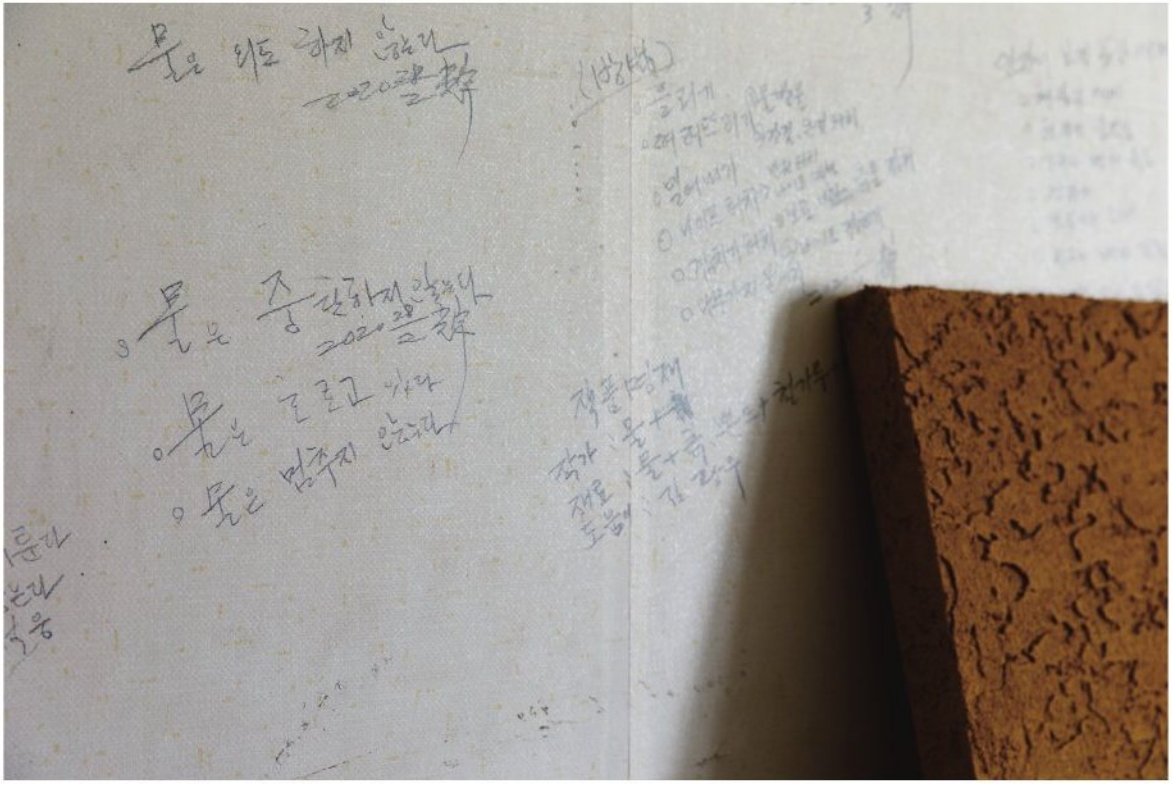
* 생가 및 작업실 사진
* 김광우가 걸어온 길








SCULPTU
KIM KWANG W




티팩&GREEN
TEL: 051-210-0713



김광우
그가 걸어온 길...

1941년 / 1세

1941년
3월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3리 450번지에서 김흥만(父)과 조삼순(母)사이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50 ~ 1953년 / 10세 ~ 13세

1950년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총을 쏘며 남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
어린 시절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하고 피난을 다니며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

1953년
장남이었던 그는 휴전 중 미군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포천 생가 뒤의 영평천 자연환경에서 뛰어놀며 예술적 감성이 싹트기 시작한다. 중·고등학교 시절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나 그 시절 아름다운 고향의 산, 바위를 보며 막연히 조각 작품을 세워야겠다는 상상 을 하면서 조각가의 꿈을 키운다.

1961년 / 20세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 15기로 입학한다.
중·고등학교 시절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이나 지도 없이 오로지 독학으로 미술을 배우고 홍대 실기 대회에서 뎃생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될정도로 기초가 빈약한 상태에서 입시를 준비하여 홍익대학교에 입학한다.

서울의 다락방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으며 여름엔 찜통, 겨울엔 난로 하나 없는 방에서 몸의 온기로만 생활하였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쌀 한말이 전부였다. 학교에서 물로 허기를 채우고 마포에서 왕십리까지 걸어와 저녁 늦게 어머니가 보내주신 쌀로 밥을 지어 고추장에 비벼먹는 것을 유일한 한 끼로 대학 4년을 생활하였다.



1970년 진명여고 작업실에서

1962년 / 21세

1962년

조소과에 진학하였으나 조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작품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와중에 헨리무어의 볼륨이나 매스에 영향을 받고 특히, 자코메티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자코메티의 생성에서 소멸로 가는 자연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게 되고 자연의 모든 것은 언젠가 소멸되어 간다라는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가난한 예술가 인생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며 한 달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기로 작정하고 생활한다.
그 체험 끝에 얻은 결론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한 순간은 조각할 때 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 조각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

1963 ~ 1969년 / 22세 ~ 28세

1963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약칭 국전) 공모전에 입선을 수상하였다. (1963년부터 1973년까지 연속 10회를 수상하였다.)
신인 예술전 및 신상회에서 입선을 수상하였다.

1965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정읍 왕신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게 되며 교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966년

3월 1일 육군 보병에 입대하게 된다. 이 당시 그는 군복무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 예술가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란 각오로 군생활과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1969년 육군 보병을 만기제대 하였다.

1970 ~ 1974년 / 29세 ~ 33세

1970년

3월 진명여자고등학교로 부임하게 되었다.
또한, 아내 유대선과 결혼하여 장남 김항진이 출생하게 된다.

1973년

5월 차녀 김윤희가 출생하고, 9월 한·일 친선 조각전으로 일본에 방문한다.

1974년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출강하며 '한국미술협회전'에서 예총회장상, 그리고 10번의 도전 끝에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국청년작가회를 창립하며 창립 회원이 되었다.

자연의 순리 역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연+인간+우연'이란 명제도 이 무렵 등장한다.
어떻게 하면 인간에, 자연에 가깝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인간의 생각이 배제된 우연의 세계를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생각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



1977년 국전총리상 동아일보 기사



1981년 창원대 교수 재임 시절

1975 ~ 1977년 / 34세 ~ 36세

1975년
9월 국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가하게 된다. 공간 대상전 현역작가로 21인이 초대되어 전시를 진행하였는데 그중 1인으로 전시에 참여하였다.

1976년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고 한국미술 청년작가회에서 도미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77년
국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제 1회 개인전 (자연+인간+우연)을 개최하였다.

1978 ~ 1980년 / 37세 ~ 39세

1978년
시형조각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된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에 참여하였다.

1979년
청년작가회관 전세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사기를 당하고 큰 빚을 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웃하여 살던 친구 송번수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세검정 생활 당시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였다.

1980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아시아 현대미술전에 참여하였다.

1981 ~ 1982년 / 40세 ~ 41세

1981년
국립창원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부임하고 중앙미술대전 초대전에 초대되어 전시에 참여하였다. 서울의 관훈미술관에서 개최된 오늘의 상황전 전시에 참여하였다.

1982년
3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강사로 출강하고 9월에 제5회 경상남도 도전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休日없는 작업장 實驗性·조형영역 확대
創作의 産室
제6회 중진예술인들의 創作현장을 찾아 ⑦
조각가 金光宇씨
자연+인간+우연 추구

1984년 경남신문 기사


The New York Times
Show Made of Driftwood and Rusty Metal

1998년 뉴욕타임즈 기사

1985 ~ 1987년 / 44세 ~ 46세

1985년

-9월 제8회 경상남도 도전
-제16회 전국대학 미전 운영위원
프랑스에서 열린 그랑팔레의 한국미술 초대전에 참여하였다.

1986년

서울 토탈미술관에서 개최된 현대미술의 검증 「한국조각의 오늘」 전시에 참여하였다.

1987년

3월 부산 동아대학교의 교수로 부임 되었으며 11월 제13회 부산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1989년 / 48세

자연+인간 시리즈 구상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자연의 물리적 우연성을 작품에 도입하였다면,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1987 부산 바다 미술제 출품작을 보듯이 물고기 형상에 기계 부품을 결합한 설치 작업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즉, 폭력적 결합이란 새로운 조형 언어를 작품에 표현하기 시작하며 김광우 작품의 2기를 여는 작품세계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

1997 ~ 1998년 / 56세 ~ 57세

1997년

-5월 포천시 문화상 수상
-6월 서울 현대조각 공모전 심사위원

1998년

동아대학교 교수 생활 중 안식년을 신청하여 뉴욕을 방문한다. 변종곤 선생 주선으로 뉴욕 허드슨 갤러리에서 계획에 없던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작품재료를 준비하다 허드슨 강둑에 걸려 있던 부유목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나무의 질감과 형태에 매료되어 작품 제작 석달 동안 40여 점의 작품들을 완성하였다.
그렇게 개최된 개인전은 호응을 받게 된다. 뉴욕타임즈의 비비안 레이너 기자가 방문 후 작성한 전시 기사는 호평 속에 뉴욕타임즈 아트섹션 1면 헤드라인으로 전면 기재되었다.



문신미술상 시상식 마산시와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는 27일 오후 6시 마산시립 문신미술관에서 제3회 문신미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김광우(63) 동아대 교수가 수상했다. /진영원 기자

2004년 문신 미술상 시상식



美術聞

제21회 김세중조각상 김 광 우

제18회 김세중청년조각상 김 태 곤, 천 성 영 제10회 한국미술저작상 김 리 나

2007년 김세중 조각상 수상 미술신문 기사

2003년 / 62세

2003년

김광우는 작가로서 열정뿐만 아니라 바다미술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의 탁월한 시야와 전체를 바라보는 대단한 안목으로 고향 포천의 아트밸리 조성에도 일대 큰 변혁을 가져온다. 폐석산 석벽 위에 인물 조각을 새기려고 하던 당초 계획을 무산시키고 채석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곳에 물을 채우는 자연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여 흉물이던 폐석산을 아름다운 아트밸리로 탈바꿈 시켰다.

역발상의 사고 그것이 김광우의 예술이 항상 힘이 있고 진취적인 이유 중 하나로 오늘날 포천 아트밸리의 명성과 성공은 그의 자연과 인간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짐으로써 가능했다.

- 포천 아트밸리 추진위원회 위원
- 7월 제6회 개인전 <자연+인간>

2004 ~ 2006년 / 63세 ~ 65세

2004년

-4월 제5회 MBC 부산 문화 대상 수상
-9월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9월 원주시 현충탑 조형물 재건립 사업 작품 선정 심사
-9월 제3회 문신 미술상 수상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2005년

-1월 포천 국제 조각 심포지움 운영위원
-5월 제4회 문신미술상 심사위원
-12월 을숙도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제7회 개인전 <자연+인간>
-대통령 표창, 시카고 아트페어 참가

2007 ~ 2009년 / 66세 ~ 68세

2007년

-6월 제21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9월 동아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명예교수
-9월 동아대 정년퇴임 후 포천귀향
-10월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특별전 초대
-10월 포천중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선후배 멘토링 협약

2008년

고향 포천에 자신의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미술관 건립 추진

2009년

-1월 포천시 정책위원 위촉
-러시아 펜자국제조각 심포지움 참여
-한국 10대 조각가 선정, 쓰레기 매립지 위에 조성된 노을 공원에 '숨쉬는 땅'이라는 명제의 기념비적 조형 작품 설치

2010 ~ 2013년 / 69세 ~ 72세

2010년
인천 아시안게임 디자인 위원 위촉

2011년
-포천미래포럼 초대회장
-6월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 사업회 고문 위촉

2012년
전 세계 노벨 평화 수상자들의 동상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인류 평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상 사물이나 오브제를 모래로 덮어 버리는 작업을 시도하며 작품 구상에 들어간다.

2013년
'70년대 예술혼의 부활'을 주제로 열린 <70's 르네상스 조각전시회>에 현대 조각사를 빛낸 8인의 원로 작가로 초대되었다.

2015 ~ 2021년 / 74세 ~ 80세

2015년
동아대제자 박은생, 박상호의 노력으로
예술지구P에서 '자연+설치' 개인전 개최

2018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포스트휴먼>전에 마스터 작가로 초대되어 모래 작업 이후 흙 자체의 물성에 주목, 처음이자 생애 마지막 도조 작업을 시도한다.

2019년
이후 흙+물, 흙+물+안료 등 원초적인 물성으로 새로운 평면 작품과 부조작업, 유머러스한 오브제 작업 등 평면과 입체 사이를 오가는 자유로운 창작을 지속하였다.

2021년
2월 포천문화관광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나 3월 30일 오후 9시, 향년 80세의 나이에 별세하였다.

사진작가 최광호 제공

김광우 미술관

김광우: 1974~2021 자연+인간

Kim Kwang Woo: 1974~2021 Nature+Human

초판 인쇄일 2024년 10월 00일

초판 발행일 2024년 10월 00일

기획 (재)포천문화관광재단 관광컨텐츠팀

발행처 (재)포천문화관광재단

www.pcfac.or.kr

도움주신분 이봉석, 최광호

편집/디자인 디자인필립

펴낸곳 도서출판 인터웰

이 책은 2024년 (재)포천문화관광재단 김광우 미술관 개관 사업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포천문화관광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큰 포천 행복"

포천문화관광재단

Pocheon Culture & Tourism Foundation

김광우 미술관

"더 포천 큰 행복"

포천문화관광재단
Pocheon Culture & Tourism Foundation